

보도시점 2026. 10. 8.(목) 배포 즉시

국적과 관계없이 정당한 수급권은 보장하고,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

1. 관련 기사

- 10. 8.(목) 동아일보, “中동포·중국인, 고용보험료 낸 돈의 2.6배 받아갔다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1.8%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.9%씩 보험료로 부담하여 재원을 조성하고,
 -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내·외국인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요건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음
- 기사에서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'21년부터 '26.7월까지 납부한 보험료로 제시한 1,559억원은 노동자가 납부한 보험료만 계산한 금액임
 - 실제 실업급여 계정의 재원에는 사업주 보험료까지 포함되므로, 노동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보험료 부과액은 3,117억원임
 - 이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동포·중국인의 보험료 부과액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*은 2.6배가 아닌 1.3배이며,
 - * 다만, 보험료 부과 대상자와 구직급여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, 수급자가 '2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은 단순 비교이므로, 이 비율이 개인별·국적별 재정 수지를 의미하지는 않음

- 중국동포·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 비율은 0.9배로, 지급액보다 보험료 부과액이 더 많고,
- 최근 5년간 전체 총 지급액에서 외국인 지급액 비중은 1.0% 이내에서 정체되고 있음
- * ① 전체 수급자 중 외국인 수급자 비중: ('21년) 0.9% → ('25년) 1.0%
- ② 전체 지급액 중 외국인 지급액 비중: ('21년) 0.8% → ('25년) 0.9%

□ 중국동포와 중국인의 지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종사업종 등 취업구조의 차이가 반영

- 대부분(70% 이상)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이직이 잦은 건설·제조·숙박음식업 등에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데 비롯된 것으로 분석

* 내국인 수급자의 건설·제조·숙박음식업 종사자 비율: 35.7%

- 특히, 중국동포·중국인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(47%, 최근 5년)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·도소매·시설관리업에 종사

-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높아, 최저임금 수준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급액이 많아지는 경향

* 구직급여 수급자 하한액 비율 : ▲숙박·음식 83.1% ▲도·소매 72.7% ▲시설관리 82.8%

↳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분포

□ 한편,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 비중('25년 기준)은 15.9%, 3회 이상 반복 수급자 비중은 1.9%로,

-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의 2회 이상(28.3%), 3회 이상 반복 수급자 비중(6.6%) 보다 낮은 수준

-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인의 경우 외국인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(77.9%)은 높지만,

- 2회 이상 반복 수급(16.3%) 및 3회 이상 반복 수급 비중(1.7%)은 더 낮게 나타남

□ 또한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 중 중국동포·중국인 비율은 0.9% 수준

- 정부는 내·외국인 및 국적과 관계없이 **정당한 수급권은 보장**하되,
-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과 부정수급에 대한 **모니터링을 강화**하고, 수급자에 대한 **재취업 지원**을 **강화**해 나가는 한편,
 - 지난 9.1. 발표한 「**실업급여 제도개편 방안**」을 중심으로, 실직자 **생활 안정 지원**과 **재취업 촉진**이라는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,
 - **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**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**지속적**으로 **강구**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손성길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	곽필순 (044-202-7371)

